

한마디

유대인들의 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은 워싱턴 DC에 기념관을 세웠다. 이스라엘이나 폴란드, 독일의 땅이 아닌 미국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관을 세웠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미국은 유대인 학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념관이 미국의 수도에 세워진 것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을 그들은 갖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당한 처참함과 히틀러에 당한 유대인의 처참함과 비교될만 한데 기념관은 커



▲ 일본총리의 한국방문을 앞둔 지난 92년 1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제치하 동안 숨진 한국인들의 가족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호소하고 일본의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인의 Holocaust 박물관 세워야...

녕 그 처참함을 기억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몇 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왜 한국인은 지나간 과거를 망각하려 할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남의 나라의 노예생활을 견디어냈단 말인가?

이 마을에 「워싱턴 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가 있다.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3월1일엔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와 평화의 행진」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서울에 있는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대 할머니 김학순 여사를 워싱턴에 초청해 동족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고 뉴욕의 UN본부 앞에서도 정의와 평화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나는 이 단체로부터 그동안 간행된 자료들을 받았다. 우리가 듣던 아픔이 활자화되어 나의 뇌리에 파고 들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20만의 아세아 여자들을 일본 군인들의 창녀로 썼다. 그 20만중의 80퍼센트가 한국여자라고 일본 사학자들도 말하고 있다. 참으로 비참한 한국여자

들이었다. 한국남자들이 못난 사람들과 이어서 죄없는 한국여자들 16만이 중국의 오지로 탄약과 함께 '보급'되어 일본 병정들의 '정액받이' 노릇을 했으니 한국여자들이 당한만큼 당한 여자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중국의 오지에서만이 아니다.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당시 자바섬), 오키나와, 사이판, 뉴기니아의 정글에서 한국여자들은 알몸으로 일본 병정들의 성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하루에 15명, 20명이 그들의 알몸을 주물렀으며, 주말에는 30명, 40명이 덮쳤다.

저항하는 여자들은 칼에 찔려 죽었고 총맞아 죽었다. 하루 두끼 얻어 먹으며 모멸이란 모멸은 다 받으며 모진 생명을 연장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대량학살 당하거나 열대 정글 속에 버려졌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미군과 연합군의 조사를 받았으며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불쌍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지금 한국에는 30여명의 정신대 할머니가 그들의 몸서리치는 과거를 증언하고 있다. 「강제로 끌려 간 조선인군 위안부」가 그들의 증언집이다. 그들의 증언은 차마 들을 수가 없다.

10대의 처녀가 끌려가 장교들에게 '처녀'를 빼앗기고, 그 다음엔 병사들의 성의 도구가 되어 시달렸다.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러 나왔다고 생각한 처녀들이 빠져 나올 수 없는 전지(戰地)에서 움짱달짱할 수도 없이 당했다. 적지(敵地)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증언.

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판 소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의 강순임씨는 분노한다. 일본은 1990년까지 일본 정부가 관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여자들에게 보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 이후 '징용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시다 세이지가 제주도에서 남자, 여자를 '사냥'해 남자는 탄광용으로, 여자는 위안부로 넘겼다는 고백과 함께 숨겨졌던 정부자료들이 나왔다. 일본군대가 여자들의 거처를 짓고 음식과 콘돔을 제공했고 여자와의 시간 규정을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넘칠 정도였다.

92년 1월 미야자와 수상이 한국을 방문해 두 나라의 서글썸던 역사에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도 '강제성'이 없었던 위안부들

을 말하고 있다.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창녀 노릇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통곡할 노릇이다. 그래 한국 여자의 증언에 진실성이 없다고 가정하자.

자바섬에 살던 네덜란드계 처녀가 다른 처녀들과 함께 끌려가 일본군 장교들의 성의 노예가 되었다는 수기를 쓰고 있다. 「강간 당한 여자의 울음」(Cry of the Raped)을 읽으면 한국 여자에게 어떻게 했나를 의심할 수 없다. 유럽 여성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했단다. 자바가 그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니 거기서도 일본군인들은 탄약이 필요하듯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로 잡아들였던 아니었던 그들이 한국에 한 만행은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그들의 만행을 숨기려 한다. 그들의 돈으로 UN을 움직이려

한다. 1965년 한·일외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5억불 준 것으로 일본은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한다. 3억불은 차관(loan)이었고 2억불은 포항제철 세우는 데 썼다.

일본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그들은 한국을 짓밟았고 한국여자들을 유린했다. 그리고 지금 뻔뻔하다.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텐데.

정신대로 끌려갔다 살아남은 여자 중에 어느 한 분도 정상적인 여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여자의 삶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일본은 16만명의 한국여자들에게 16억불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짓밟힌 처녀의 삶과 꿈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1인당 1억불 보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남자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아직도 우유를 마실 수 없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아픔을 나는 전율로 듣고 있었다.

<최>